

# 이론理論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미하엘 프리브스팅 | 홍수천 옮김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이 글은 Richard Brenner & Michael Proebsting,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2008년)에 실린 “Imperialism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을 번역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기순환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여전히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면, 세계화 시대에 레닌의 제국주의 분석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 논문은 제국주의 이론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글로서, 제국주의 이론이 자본주의의 지난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레닌이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하던 때는 『자본』 1권이 출간되고 50년이 지나서 자본주의 경기순환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난 뒤였다. 그런 위치에서 자본주의를 연구하여 그가 내린 주요 결론은 이 경기순환의 반복이 누적된 결과, 자본주의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자본주의는 다수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 (그 경쟁에 따르는 야만성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사회 총생산의 전체적인 증가를 가능케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던 생산양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독점이 우세해지면서 더 한층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향을 낳는 생산양식으로 되어 버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레닌이 보기에 이러한 상황은 모든 발전이 멈춰 섰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주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가 이제 그 역사적 쇠퇴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 및 그 여파로 벌어진 혁명적 상황에서 글을 썼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쇠퇴의 시대’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마감될 것이라고, 또는 적어도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예상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뒤이은 자본주의의 역사로 볼 때 결국 그의 분석과 그의 결론 모두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논문은 레닌 이론의 핵심 요소들을 검토하는 글인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1920년대에 혁명적 운동의 패배로 인해 제국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과잉축적의 대대적인 파괴로 인해 체제에 새로운 수명연장이 주어졌지만, 최근의 전개 과정은 자본주의가 자신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생산양식의 '쇠퇴'는 자기 안에서 다음 생산양식의 기초를 형성하게 될 힘들을 발전 성숙시키는 과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수명연장은 불평등과 빈곤,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보다 고도로 통합된 세계경제를 재생산했다. 그리하여 한편에는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 시스템과 다른 한편에는 더욱 더 소수에게 집중된 사적소유 사이의 모순을 훨씬 더 극대화시켰다.

## 레닌의 제국주의 정의

제국주의의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세계 대다수 나라와 인민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강대국들한테 종속되는 것이겠지만, 레닌에게 있어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성격은 다른 데 있다. 생산을 지배하는 지점까지 자본주의 독점이 발전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이었다.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대체, 이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핵심이다.”<sup>1)</sup> 독점은 그에 앞선 '자유무역' 단계의 자본주의로부터 직접 성장해 나왔다.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와 상품생산 일반에 깊숙이 자리한 근본적인 경향이 직접 발전·성장하고 지속하면서 야기된 것이다.<sup>2)</sup>

사실,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로부터 유래한다. 마르크스는 오늘날 주식회사의 최초 사례들인 합자(合資)회사의 형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이러한 합자회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에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폐지를,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소되어 가는 모순을 상징한다. 이것은 명백히 새로운 생산 형태로의 이행 국면의 상징이다. 합자회사는 스스로를 어떤 모순으로, 자신이 가져온 결과에서의 모순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합자회사는 특정 영역에서의 독점을 형성하며, 그럼으로써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한다. 합자회사는 새로운 금융과두제, 즉 발기인, 주주, 단지 명목상의 이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생 집단을 재생산한다. 또한 회사 설립, 주식 발행, 주식 투기 등을 통해 사기와 협잡의 전체 체계를 재생산한다. 합자회사는 사적 소유의 통제가 없는 사적 생산이다.<sup>3)</sup>

마르크스는 또한 어떻게 합자회사들과 신용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화된 소유에 기반한 체제로 이행하는 국면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적 소유에 여전히 결부된 채로 있는 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기능이 단순한 연합 생산자들의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화하는 과도적 형태이다.<sup>4)</sup>

독점체는 자본주의적 조직 방식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를 대표하며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들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들의 '국내시장'에서 점하는 힘 덕분에 독점체는 가장

1)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1916년) (강조는 원저자). 그는 다음의 한 논문 계획안에서도 제국주의의 정의에 대한 비슷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다음을 보라. 레닌 : 논문 계획안 “제국주의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레닌 전집 39권 (『제국주의론 노트』).

2)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에 레닌이 쓴 서문 (1915년).

3) 마르크스, 『자본』 3권 568쪽.

4) 마르크스, 같은 책.

중요한 원료 공급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점의 발전은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해서 금융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금융자본은 금융과두제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되고, 이 금융과두제가 각 선진 자본주의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화’의 측면들이 모여서 이제 낡은 ‘식민정책’(즉 레닌이 “자유로운 영토 약탈”이라고 불렀던 것)이 독점적인 영토 보유 및 그에 따른 세계의 분할·재분할 투쟁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레닌의 주장처럼 독점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핵심”이라면, 그의 독점 분석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만 또한 그의 시대 epoch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레닌은 독점의 거대한 힘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목했지만, 한편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다. “독점은 불가피하게 정체와 쇠퇴로 나아가는 경향을 낳는다. 독점가격은 일시적으로라도 형성되므로 기술 진보 및 그 결과로 인한 여타 모든 진보들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며, 나아가 고의로 기술 진보를 늦추는, 그러한 경제적 가능성도 나타난다.”<sup>5)</sup> 그리하여 자유무역이 그 자신의 부정을 독점의 형태로 창출하는 것처럼, 독점도 자본주의 내에서 가장 발전된 요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추동력인 경쟁, 즉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을 부정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 강력한 기업이 원료시장을 매점(買占)하고 독점가격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 기업은 보다 효과적인 생산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그 동안의 압력 같은 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동시에, 레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경향이지 더 한 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절대적 장벽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규모에서 볼 때 ‘독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즉 어느 한 경제 부문에서의 단일 생산자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오히려 레닌은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 각국에 존재하는 한줌의 거대 기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끼리 가격을 담합할 수 있고 실제로 담합했지만,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달콤한 째미조차도 경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 특히 세계시장에서는 - 고 보았다. 그는 독점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 개선을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늘릴 가능성이 확실히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독점의 특징인 정체와 쇠퇴로 나아가는 경향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몇몇 산업 분야, 몇몇 나라들에서 특정 시기 동안에는 그 경향이 우세해진다.<sup>6)</sup>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에 대한 레닌의 개념에는 경제 및 생산력 발전의 역동성과 쇠퇴 경향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일종의 평형상태로, 즉 하나의 힘과 다른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가 제국주의의 규정적인 특징을 놓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를 기생적인 또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sup>7)</sup>

그럼에도, “이러한 쇠퇴 경향이 자본주의 급속한 발전을 배제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류일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특정 산업 분야가, 부르주아지의 특정 계층이, 특정 나라가 정도의

5)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모스크바 1968년) 93쪽.

6) 같은 책.

7) 같은 책 116쪽.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상반된 경향을 번갈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전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일반적으로 점점 더 불균등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장의 불균등성은 특히 자본이 가장 풍부한 나라들의 쇠퇴라는 현상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sup>8)</sup>

레닌이 이 글을 썼을 때 그는 이에 대한 사례로 명시적으로 영국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되듯 이제 미국에 대해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자본주의의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억누르는 독점의 불가피한 형성 사이의 관계가 제국주의에서 근본적이다. 이 근본적 관계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레닌의 요약적인 제국주의의 정의를 이해하는 개념 틀을 제공한다.

- ①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도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 ②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 ③ 상품 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 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 ④ 국제적 독점자본가 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한다
- ⑤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성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이다.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자본 수출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획득하며, 국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며, 자본주의 거대 열강 간에 전 지구 모든 영토의 분할이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가 바로 제국주의이다.<sup>9)</sup>

레닌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국주의의 역사적 분류와 관련하여 명확한 결론에 이른다. 즉 그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았다.

왜 제국주의가 사멸하는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자본주의인지는 분명하다. 자본주의에서 자라 나온 독점은 이미 죽어가는 자본주의이며, 사회주의로 이행의 시작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거대 규모로 노동의 사회화(제국주의의 변호론자들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연동’이라고 부르는 것)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sup>10)</sup>

이 마지막 논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가장 높이, 가장 발달한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는 더 한 층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생산의 사회화를 가장 높은 지점으로까지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힘과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육체적 생존을 보장 받기 위해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잡아야 할 필요 사이의 긴장을 지탱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끌어올린다. 또 다른 글에서 레닌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썩어문드러질 지경에 이른 자본주의 시대, 붕괴에 직면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길을 닦는 자본주의 시대이다.”<sup>11)</sup>

자본주의 그 자체의 발전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복할 사회세력을 창조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단계가 바로 제국주의라는 이러한 인식은 이미 부하린이 망명지에서 레닌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었을 때 정립한 바 있다.

현대 사회는 생산력을 거대한 정도로까지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강력하게 정복

8) 같은 책.

9) 같은 책 83쪽.

10)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1916년) (강조는 원저자).

11) 레닌, 「기회주의와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하고 있으며 자연을 인간의 지배 아래 전례 없는 규모로 종속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바탕에서는 자본주의 족쇄 아래서 질식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의 본질 그 자체에 내재하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시작 단계에 맹아 상태로 나타나는 모순이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매 단계마다 그 범위를 넓혀 왔다. 제국주의 시대에 그 모순은 거대한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와 같은 규모에 이른 생산력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강렬히 요구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불가피하게 폭발할 것이다.<sup>12)</sup>

이와 비슷하게 에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 또한 자본주의의 전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마르크스와 레닌이 기여한 바를 검토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인 쇠퇴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레닌은 몰락·해체의 시발점에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분석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쇠퇴의 시대에 있는 전체 자본주의 사회를 해부해야 했다. ... 레닌은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가 시작한 시기에 국가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 이에 비해 그가 살고 있던 때는 자본주의 해체의 시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시작된 시대였다.<sup>13)</sup>

여기에는 제국주의 분석의 또 하나 특징이 깔려 있다. 그것은 세계시장의 중요성으로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채택했고, 특히 트로츠키와 부하린이 강조한 지점이다. 제국주의와 그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치·경제적 세계체제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각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내부적 요인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자율적인 민족국가들 및 민족경제들의 단순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4)</sup> 제국주의는 민족적 요소들의 용광로로 작용하는 독자적인 총체로서의 세계경제이자 세계정치로서, 민족국가들 위에 군림하여 민족국가들을 강제하는 결정적인 추동 주체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결합·불균등 발전은 한 나라의 주어진 지역적 특성과 조우하여, 그 나라의 특수한 민족적 정치·경제 관계의 동력학과 융합한다. 트로츠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경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일국적 요소들의 총합이 아니라 국제 분업과 세계시장에 의해 창출된 막강한 독립적인 실체이자 우리 시대에 일국 시장을 오만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계경제 말이다.<sup>15)</sup>

자본주의 생산양식, 생산 과정, 더 높은 수준으로의 자본 재생산은 역동적인, 그러나 위기를 달고 다니며 언제든 깨지기 쉬운 균형 - 폭발적인 내적 모순을 특징으로 하는 균형 - 을 내재하고 있다. 이 균형 상태는 변증법적 의미에서 대립물의 일시적 통일로, 즉 그 발전 과정에서 대립물이 서로 분리되고 보다 높은 단계에서 스스로를 해소하는 그러한 대립물의 통일로 이해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것을 일반적 진리로 간주했다. “모든 균형은 오직 상

12) Nikolai Bukharin: Imperialismus und Weltwirtschaft (1915), Berlin 1929, p. 190f. (니콜라이 부하린이 쓴 책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에서).

13) Evgenii Preobrazhenskij: “Marx und Lenin” (1924) in Eugen Preobrazenskij: Die sozialistische Alternative. Marx, Lenin und die Anarchisten über die Abschaffung des Kapitalismus, Berlin 1974, p. 134ff. (에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쓴 책 『사회주의적 대안 : 자본주의 철폐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과 아나키스트들의 견해』에 실린 논문 「마르크스와 레닌」에서).

14)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한 특징인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스탈린주의는 1924년에 일국사회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15) Leon Trotsky: Introduction to the German edition (1930) of The Permanent Revolution, London 1962, p.22. (트로츠키가 쓴 책 『영구혁명론』의 독일어판 서문에서).

대적이고 일시적이다.”<sup>16)</sup>

이것은 자본주의가 확대될수록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 내적 적대 또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하린이 표현한 다음과 같은 생생한 구절은 특히 2008년에, 즉 부채의 모래성 위에서 부풀려진 세계화 호황이 공황으로 곤두박질 친 2008년에 특히 맞아떨어져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재생산 과정은 단순히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주의 모순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다.<sup>17)</sup>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로서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간에 자본주의가 기술이나 노동생산성을 개선 발전시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체제가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인류를 위한 일반화된 사회적 진보로 변모시킬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띠게 되었음을 뜻한다. 필연적으로 독점화는, 특정 시기 특정 부문에서의 성장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역동성 저하는 성장을 저하, 불안정, 그리고 경제·정치 영역에서 구조적 위기로 나타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대이다. 특정 시점에 이러한 충돌은 불가피하게 전쟁과 혁명 같은 공공연한 폭발로 이어진다. 분명하게도 제국주의 이론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졌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의 시대적 특징들은 그 직접적인 외적 표현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루어야 했던 제국주의 분석은 어떤 것이었나? 그러한 직접적으로 폭발적인 국면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해 해소된 -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제국주의 모순이 해소된 - 그러한 시점에서의 제국주의를 분석해야 했다.

그러한 반혁명에 제국주의에 새로운 생명연장을 부여하여 그 정체 경향을 상당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로 인해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 거대한 규모로 낮추어 질 때.
- 과잉 자본이 비슷하게 거대한 규모로 파괴될 때.
- 제국주의 강대국의 절대적인 헤게모니 아래 새로운 세계질서가 수립될 때(19세기에는 영국이, 1945년 이후에는 미국이 그러한 헤게모니를 쥐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되는 데 20년이 걸렸고, 궁극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성된 결과, 1948-73년의 전후 호황기가 들어섰다. 이 시기 동안 생산력은 정체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 기술 혁신은 전반적인 사회적 진보를 가져왔고, 노동자계급 다수의 생활수준도 높아졌다.

1948-73년의 전후 호황기는 그러한 시기였다. 전쟁에서 자본의 대량파괴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을 가능케 했고, 한편으로는 거대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었다. 이윤율은 평균보다 높았고, 공황과 불황은 그 기간이 짧아지고 하강곡선은 보다 얇아진 반면 상승곡선은 보다 솟구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확장성 동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시 자본주의는 1960년대 말부터 모순이 격화되고 정체 경향이 재등장하면서 위기

16) Friedrich Engels: Dialektik der Natur in MEW 20, S. 511f. (강조는 원저자) (독일어판 마르크스 · 엥겔스 전집 제20권에 수록된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에서).

17) Nikolai Bukharin: Economics of the transformation period, (New York) 1971 p.69. (강조는 원저자) (부하린이 쓴 <<과도기 경제학>>에서).

의 시기로 진입함으로써 마르크스 공황 이론과 레닌 제국주의 이론의 유효함을 재차 입증해주었다. 1973-91년의 시기 동안 자본의 과잉 축적이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였다. 강력한 정체 경향이 모든 선진 경제국들에서 등장했다. 공황과 불황이 깊어지고 더 오래 지속한 반면 상승 국면은 약해졌다. 이 시기는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 소련·동구권의 붕괴와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복고, 여기에 더해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 하락, 그리고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등,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세계화로 알려진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승리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호황기와 같은 시기로 세계경제가 되돌아갔음을 뜻하지 않음을 논증할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세계화의 특징들이 결국 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의 특징들임을, 세계화란 곧 제국주의 단계의 최근 국면에 다름 아님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어떻게 세계화 하에서 '신흥경제들'의 급속한 발전이 선진 제국주의 강대국들에서 지속된 정체·기생성(寄生性)의 강력한 경향과 나란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모순이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맞아들이게 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 장에서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자본주의 쇠퇴 경향의 여러 측면, 즉 성장률 하락, 독점화와 생산력 정체 경향, 투기와 부채 증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국주의 안에서 확인한 모순적 힘들의 메타 순환적 meta-cyclical 효과, 즉 그 모순적 힘들이 서너 차례 산업 경기순환이 진행되는 시간대(대략 30년 정도)에 걸쳐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각각의 경기순환은 '잉여' 자본이 파괴되는 하강 국면으로 끝나지만, 만약 그러한 파괴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순환은 앞선 경기순환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서너 차례 경기순환을 거치며 계속 반복되면 구조적인 자본 과잉축적을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자본 과잉축적은 자본가들이 생산에서 충분한 가치 증식을 이루어내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세계화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자본주의의 부활이 아닌, 레닌을 비롯해 동시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멸하는 자본주의, 이행기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그 동일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제국주의 시기의 특징인 것이다.

자본주의 변호론자들 및 선전가들이 자본주의 세계화가 인류에게 축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 하나 있는데, 몇몇 특정 국가나 특정 시기를 따로 떼어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들이 종종 사례로 인용하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성장이나 미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들이다. 그러나 국제 자본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단순히 특정한 시공간적 상황, 즉 한 나라나 한 기간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레닌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전 세계적 규모의 모든 요인들을 포괄해야 한다. 전 세계적 발전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현주소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맥락에서 떼어낸 고립된 데이터들을 사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사회생활의 현상들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개의 고립된 사례나 데이터를 선별해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모든 교전국과 전 세계의 경제생활에 기반하여 모든 데이터를 취해야 한다.<sup>18)</sup>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는 상당한 조심성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일련의 통계는 국제통화기금 IMF 이나 세계은행 World Bank 또는 각국 중앙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생산해낸 통계들이다. 일국 또는 국제 경제발전에 관한 그들의 성명서나 전망들은 그 자체가 경제활동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신뢰 상실' 같은 것을 부추기지 않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수치에서 여하한 부정적인 추세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잠재적 편견과는 거리가 먼 가장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들이 경제 분석에서 사용하는 범주와 개념들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이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세전, 세후, 감가상각비 계상 후 등등. 이러한 범주들은 이윤이 부불노동으로부터 나왔다는 불편한 사실을 흐려버린다. 게다가 세금 및 감가상각 계상과 관련된 기술적, 법적 변화 및 회계학적 변화 등의 결과로 이윤 보고에서 상당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 수준에서 볼 때 국가경제와 그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GDP 은 부르주아 경제 범주의 물신화된 성격을 잘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양에 의해 궁극적으로 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본다. 반면, 부르주아 경제학은 경제를 가격에 의해 규제받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시스템으로 본다. 그 결과, 'GDP'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구매 비용을 기초로 해서 계산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말해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초로 해서 계산된다. 더욱이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그 비용은 다양한 경제 부문에 할당된 서로 다른 '비중'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GDP 수치는 마르크스주의적 범주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 수치들은 생산된 모든 가치가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생산 기술의 변화로 인해 상품의 가치 내용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대체로 비슷한 방법론이 다양한 시간대에 걸친 일련의 통계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GDP의 변동 수치 및 유사 지수들은 여타의 입수 가능한 통계치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 주어진 특정 경제의 상대적 성장도와 역동성의 전체 상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실제 변동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 생산 증가율의 하락

이제 세계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로 들어가자. 생산 증가율이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증거를 가지고 시작해 보자. 먼저, 세계 GDP 성장률을 볼 텐데 여기에는 공업과 서비스 부문과 농업 각각의 연간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표 1은 10년 간격으로, 다음 표 2는 두 개의 20년 기간들을 비교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1970~2006년 기간에 대한 그림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1. 세계 GDP 성장률 (연간 %)19)

18) V I Lenin: Preface to French and German editions. Ibid. P.8. (강조는 원저자) (위 부하린의 책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에 레닌이 붙인 서문에서).

19) 1971-2000년에 대해서는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 (세계은행이 낸 <글로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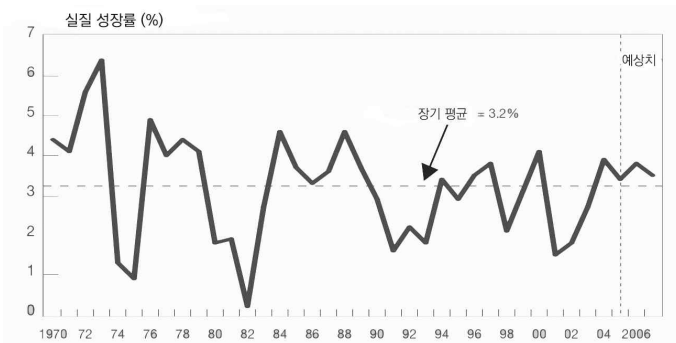
1971-1980	3.8%
1981-1990	3.2%
1991-2000	2.6%
2000-2005	2.7%

표 2. 세계 GDP 성장률 : 1960-1980년과 1980-2000년을 비교 (연간 %)<sup>20)</sup>

1960-1980	4.7%
1980-2000	3.0%

그림 1. 세계 GDP 성장률 1970-2006년<sup>21)</sup>

자료 : 1997년까지는 세계은행, 1998-2007년 기간은 IMF (GDP 총액 대비 시장 환율을 사용)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림은 우리가 GDP를 인구나 연관 지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960년대에 1인당 GDP가 3.7%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한 걸로 계산했다. 1970년대에는 2.1%로, 1980년대에는 1.3%로, 세계화의 첫 10년이었던 1990년대에는 1.1%로 하락해왔다. 2000년대 첫 3년간 평균은 1.0%이다.<sup>22)</sup>

이제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중심부와 이른바 ‘발전도상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둘 간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6년 UN세계경제사회조사를 보면, 1인당 GDP 성장률은 1960년대 말에 3.5%로 최고치에서, 1970년대에는 약 2.7%로 하락했으며, 1980년대에 2.0%, 1990년대에 1.7%로 하락했다. ‘발전도상국들’의 각 해당 시기 수치는 정확히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같다. 1960년대 말에 3.7%, 1970년대에 1.8%, 1980년대에 2.0%, 1990년대에 1.7%.<sup>23)</sup>

동일한 추세가 잉여가치 창출의 핵심 부문인 산업생산에서도 나타난다. 세계은행 수치는 전 세계 산업생산 성장률에서도 동일하게 꾸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전망> 2002년, 234쪽을 보라. 2000-2005년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UN이 낸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07년, 2쪽을 보라. 1971-2000년 사이의 GDP 수치는 세계은행이 1995년 기준 가격과 환율로 계산한 수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2000-2005년의 GDP 수치는 UN이 2000년 기준 가격과 환율로 계산한 수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2.7%는 2001-2005년 동안 수치의 산술적 평균이다. (1.6%, 1.9%, 2.7%, 4.0%, 3.5%)

2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 2007, S. 3;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IW3P/IB/2>

21) Pricewaterhouse Coopers: *UK Economic Outlook* March 2007, p. 33.

22) ILO: *A Fair Globalisation :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2004) p.36.

23)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6. *Diverging Growth and Development*, p. 9.

3.0%에서 1990년대 2.4%로, 이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 1.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sup>24)</sup>

이번에는 세계 자본의 거대한 부분이 기반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표 3a는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GDP 전체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3b는 산업생산 성장률의 핵심 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a.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GDP 성장률(연간 %로)<sup>25)</sup>

	제국주의 국가들		미국		일본		EU 15개국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1960-1969	5.1%	3.8%	4.6%	3.3%	10.2%	9.0%	5.3%	3.5%
1970-1980	3.4%	2.5%	3.2%	2.1%	4.4%	3.3%	3.0%	2.6%
1980-1990	3.0%	2.3%	3.2%	2.2%	4.1%	3.5%	2.4%	2.1%
1990-2000	2.5%	1.8%	3.2%	2.2%	1.3%	1.1%	2.0%	1.7%
2000-2005	2.2%	-	2.8%	-	1.3%	-	2.0%	-

표 3b. 제국주의 중심부에서의 산업성장률 (연간 %로)<sup>26)</sup>

	미국	일본	EU 15개국
1961-1970	4.9%	13.5%	5.2%
1971-1980	3.0%	4.1%	2.3%
1981-1990	2.2%	4.0%	1.7%
1991-2000	4.1%	0.1	1.5%
2001-2005	1.4%	-0.1%	0.1%

24) World Bank Indicators, 2005, <http://www.worldbank.org/data/wdi2005/wditext/Section4.htm> 및 World Bank Indicators, 2006, <http://www.devdata.worldbank.org/wdi2006/contents/Section4.htm>

25) 1970-2000년에 대해서는 OECD - Understanding Economic Growth (2004)를 보라. <http://213.253.134.29/oecd/pdfs/browseit/110401E.PDF>, p. 18f. 이 통계는 24개의 OECD 회원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뉴질랜드 같은 '발전도상국'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이들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이 OECD 국가의 평균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OECD 국가들의 수치는 대체로 유용한데, 왜냐하면 OECD에 속해있는 '발전도상국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U 수치를 제외한 2000-2005년 수치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p. 295에서 인용한 것이다. 1960-1969년 기간에 대해서는 Robert Brenner, The Boom and the Bubble. The US in the World Economy, London 2002, p. 47에 나온 OECD 통계를 빌어 왔다. 이 자료에 나오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치는 G7 국가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60-1969년 기간의 EU-15 수치는 오직 독일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99-2005년 기간의 EU-15 수치는 유로존 소속 EU 11개국에 대한 수치로서 다음에서 인용했다. European Commission: the EU Economy 2006 Review, p.61,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06/e](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06/e)

26) European Commission: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Autumn 2006, p.52. 1961-70년 기간과 1971-80년 기간의 EU-15에 대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간에 대해 우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수치의 산술적 평균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통계에 제시된 미국과 일본 수치들은 2003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 있는 수치를 사용했다. 2001-2005년 기간 미국에 대해서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7, p.290. 일본에 대해서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Table 4.1. 여기에는 2000-2004년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다. <http://devdata.worldbank.org/wdi2006/contents/Section4.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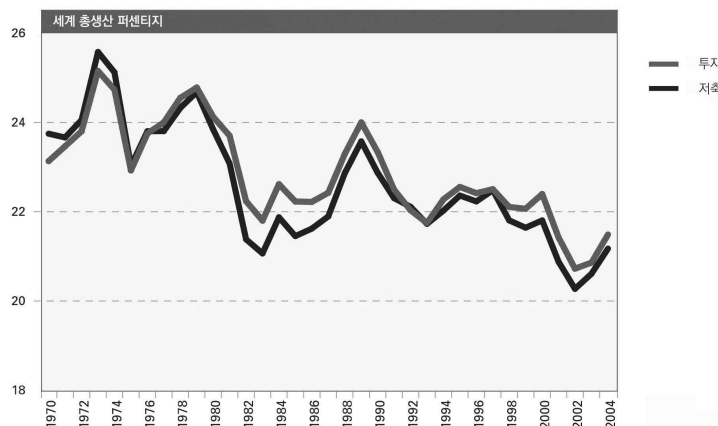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비록 미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덜 극적으로 나타나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가져온 장기적인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축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어진 경기하강이 전체 체제를 재활성화 시킬 만큼 충분히 자본 파괴를 하지 못한 것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또한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들이 자본주의가 경기순환의 사회·정치적 결과들에 의해 위협받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들을 더욱 불거지게 할 뿐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이다.

표 4. 세계 자본축적률 (연간 %로)<sup>27)</sup>

1980-1990	3.9%
1990-2000	3.2%
2000-2004	1.2%

이러한 추세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저축 및 투자율에 관한 수치들에서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2. 전 세계 GDP 중 저축 및 투자율, 1970-2004년<sup>28)</sup>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정 국가에서의 자본축적에 대해 검토하고, 고정 불변자본 - 생산 설비 및 기계에 대한 투자분 - 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범주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르주아 통계치를 살펴볼 것이다.

표 5. GDP 대비 자산투자총액 비율과 설비 및 기계 투자액 비율, 1970-2004년<sup>29)</sup>

	전체 축적률 (GDP 대비 자산투자총액 비율)					설비 및 기계 투자 축적률 (GDP 중 비율)				
	1970-80	1981-90	91-2000	2002	2004	1975-80	1981-90	91-2000	2002	2004
미국	19.8%	19.9%	18.4%	18.3%	19.3%	11.3%	11.9%	11.1%	10.1%	10.4%
일본	33.7%	29.5%	26.4%	24.2%	24.0%	17.6%	16.8%	16.1%	14.4%	15.3%

2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p. 2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Table 4.9 <http://devdata.worldbank.org/wdi2006/contents/Section4.htm>

28)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6, p. 15.

독일	24.4%	22.5%	22.4%	18.6%	17.3%	-	-	12.8%	11.0%	10.4%
프랑스	24.6%	21.6%	19.4%	19.4%	19.5%	13.5%	12.4%	11.5%	11.5%	11.1%
영국	19.8%	18.7%	16.7%	16.4%	16.9%	3.2%	3.0%	2.8%	2.6%	2.5%
이탈리아	25.3%	22.2%	19.0%	19.8%	19.3%	14.4%	12.3%	11.3%	12.1%	11.3%
인도	16.1%	20.7%	22.2%	21.9%	22.7%	1.6%	3.4%	6.8%	4.9%	4.0%
중국	27.3%	29.0%	34.6%	40.1%	44.9%	-	-	-	-	-
브라질	22.4%	24.6%	20.1%	19.0%	18.2%	-	-	-	-	-

우리는 확장 투자(순투자)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위와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순투자라는 것은 전체 투자에서 기존 자본을 보전하는 데 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순투자는 자본 기반이 확장되고 있는 정도를 드러내준다. 순투자 증가율은 특히 중요한데 그것이 실제 자본의 확대재생산 비율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 3은 일본이 1990년대 초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 - 세계화 시기를 연 조치들 - 을 취했다가 어떻게 그로부터 타격을 입었는지 특히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3.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국내순생산 대비 순투자율, 1980-2006년<sup>30)</sup>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자본 투자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1인당 자본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직접적으로 등치하진 않지만 그 추세는 명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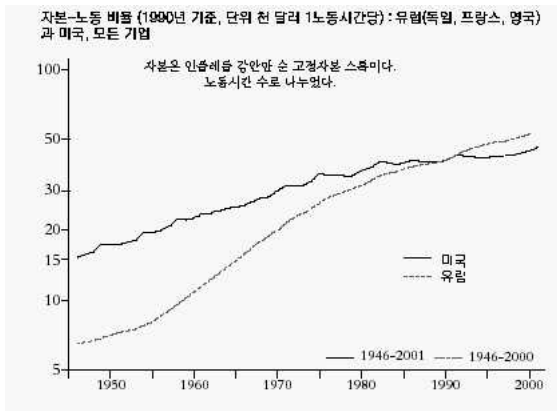
생산과 투자 증가율의 하락은 이와 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 결과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윤율 하락을 낳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장기적인 경향을 다루는 것이지, 연속적인 일 년 단위의 하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분적으로 자본가들은 이러한 경향을 상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러한 상쇄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은 명확하게 드러난다.<sup>31)</sup>

29)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6, p. 158.

30) Barclays Capital (2006) "Global Outlook: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Economic and Market Strategy, December 2006, p. 17.

31) Gérard Duménil/Dominique Lévy: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2004), presented in: Chris Harman: Snapshots of capitalism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그림 4. 노동에 대한 불변자본 비율 (1노동시간당 달러로 표시), 1946-2001년<sup>32)</sup>



먼저 1940년대 말 전후 호황기가 시작하는 시점 이래 핵심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순 이윤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sup>33)</sup>

표 6. 미국, 독일, 일본에서 비금융부문 순 이윤율, 1948-2000년<sup>34)</sup>

	미국	일본	독일
1948-1959	14.3%	17.3%	23.4%
1959-1969	15.0%	25.4%	17.5%
1969-1979	10.3%	20.5%	12.8%
1979-1990	9.0%	16.7%	11.8%
1990-2000	10.1%	10.8%	10.4%

이번엔 2차 대전이 끝나고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 이래 최대 제국주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이윤율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1980년대 말 이래 일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쇠퇴와 특수하게는 이윤율의 문제에 관해 마르크스주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로버트 브레너, 프레드 모슬리, 톰 바이스코프, 더그 헨우드, 레비와 뒤메닐 등의 논자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과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이들 사이에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윤율이 내내 높았다가 그 뒤 가파르게 하락을 보이면서 마침내 1973-75년의 불황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다음 번 고점이 1993~96년에 왔지만 이 시기는 누구의 계산에서도 195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표 7에 제시된 수치는 프레드 모슬리와 더그 헨우드로부터 인용한 것인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준다.

표 7. 미국 경제에서 이윤율의 전개, 1947-2004년<sup>35)</sup>

1947	22%	1967	19%	1987	14%	2004	19%
1952	15.0%	1972	16%	1992	15%		

(ISJ) 113, <http://www.isj.org.uk/index.php4?id=292&issue=113>

32) Gérard Duménil/Dominique Lévy: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2004), presented in Chris Harman: Snapshots of capitalism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J) 113, <http://www.isj.org.uk/index.php4?id=292&issue=113>

33) 순 이윤율은 총 이윤율과는 달리 순 자본 가치, 즉 고정자본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난 자본 가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34) Robert Brenner : "After Boom, Bubble, and Bust: Where is the US Economy Going?" in Worlds of Capitalism: Institu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Governan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2005), p.204. 일본에 대한 데이터는 1952년에, 독일은 1950년에 시작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치는 비금융기업 부문에 바탕을 둔 것이고, 독일에 대한 수치는 비농업기업 부문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림 5. 비금융부문 이윤율, 미국 1952-2002년<sup>36)</sup>

이 그림에서 보듯 전후 시기 제국주의 자본은 이윤율 저하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자본은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상쇄 비용 및 방법은 일반화될 수 없으며, 지속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볼 것이다.

### 상쇄 조치들

1980년대 초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반격 작전, 즉 '장기호황'기 동안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이 쟁취한 사회·정치적 성과물들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의 목표는 착취를 증가시켜 이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키는 '신자본주의'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담았다.

- 국가 소유의 민영화(사유화)
- 교육 및 공공 서비스의 해체
- 노동력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동유연화 및 불안정 노동
- 이민자들을 겨냥한 인종주의와 착취
- 민주적 권리의 제한
- 대대적인 자본 수출
- 대외정책의 군사화

이것들이 '세계화'의 길을 연 조치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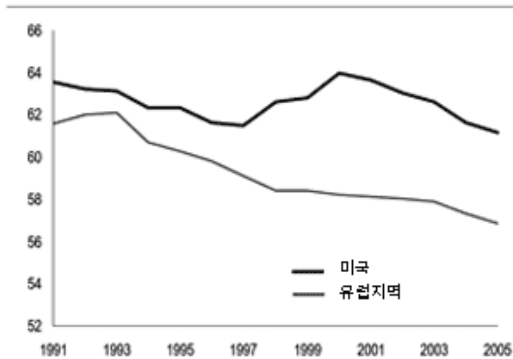
###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35) Fred Moseley: "Marxian Crisis Theory and the Post War U. S. Economy" in A.Saad-Filho (e d.), AntiCapitalism : A Marxist Introduction, (2003) p. 212 및 Fred Moseley: Is The U.S. Economy Headed For A Hard Landing? <http://www.mtholyoke.edu/courses/fmoseley/HARDLANDING.doc>. Moseley의 이윤율 계산은 경제 전체에 관한 것으로, 비금융 부문과 금융 부문 둘 다 포함하고 있다.

36) Doug Henwood: After the New Economy, New York 2003, S. 204; 다음을 또한 보라. <http://www.leftbusinessobserver.com/NewEcon.htm>

자본은 (사회적 임금을 포함한) 임금 비용을 삭감하고 잉여노동 및 잉여가치 량을 증가시키

국민소득에서 임금 몫, 유로 지역과 미국 (GDP 중 %)



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다음 두 개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모두 임금은 총소득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창조된 가치 중 이윤으로 가는 몫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금에서 이윤으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났음을 특히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947~79년 기간에 주민의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증가(94%에서 120% 사이)한 반면, 1977~94년 기간에는 주민 대다수의 가계소득이 하락했고, 1990년대 말에 가서는 더욱 더 하락했다. 더그 헨우드는 미국에서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1973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14.1% 하락한 것으로

그림 6.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EU와 미국 1991-2005년<sup>37)</sup>

추산했다. 동시에 가장 부유한 1%는 72%라는 극적인 소득 증가를 올릴 수 있었다. 오늘 이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사회적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이래 단 한 번뿐이었던 수치,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단 한 번 도달했던 수치이다. 한편 다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미국 노동자들은 평균 가계소득을 벌기 위해 예전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들의 공격은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대대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고 불평등이 커졌다. 그림 8이 보여주는 바, 최근 몇 십 년 간 전 세계 인구의 단지 5%를 접하는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압도 다수의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그림 7. 평균 가계소득을 버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1947-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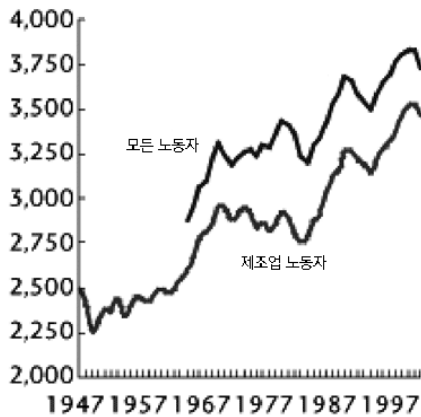
그림 8. 1980-2000년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의 수와 1인당 GDP가 감소한 나라들

0과 1 사이의 수치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더 크다)는 우리에게 불평등 증가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필립 오히라가 쓴 『세계 정치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서 추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지니 계수를 살펴보자.<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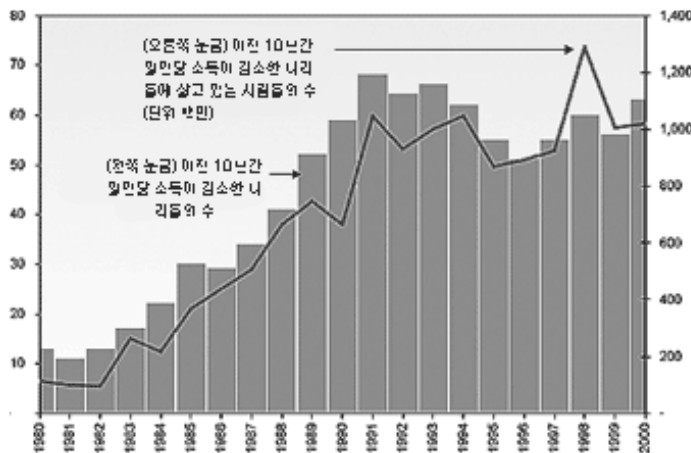
37) Labour market developments in the euro area, in Quarterly Report on the Euro Area 3/2006, p. 28.

38) Phillip Anthony O'Hara, Growth and Development of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이 수치가 명백히 보여주는 바는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신자유주의가 더 큰 불평등을 낳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
미국	0.39	0.4	0.46	0.44
영국	0.26	0.29	0.32	0.36
브라질	0.55	0.56	0.61	0.63
중국	n/a	0.2	0.28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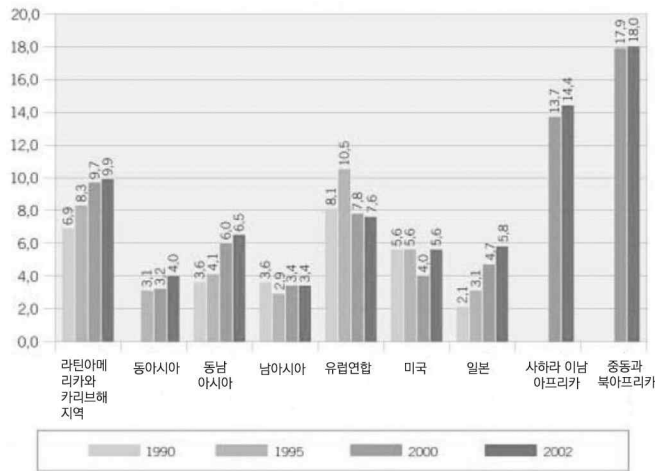
반면,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증대된 부가 더욱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서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세계화는 세계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착취와 더 큰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로서, 그리고 사용자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한 결과로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 증가가 초래됐다. 전 세계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업은 증가해 왔으며, 백분율로 따져 고용율은 약 62% 수준에서 고정된 채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용 없는 성장” 혹은 “고용 창출에 성장이 미치는 미미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의 호황은 전 세계적으로

2006, p 57.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sup>39)</sup> 취업자 가운데 43.5%가 2004-5년 호황 이후에도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이전 2002년에 50%에서 그나마 줄었다는 것이 이 정도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4억8천6백7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자신 및 가족의 삶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하루 1달러 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13억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 2달러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4명 이상이 빈곤하다.”<sup>40)</sup>

그림 9. 1990-2002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량실업의 증가



더욱이 이 수치는 비공식 경제에서의 실업자들인 수억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 빈곤을 줄이려면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고도성장의 시기들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 자본주의에서 이윤과 성장의 과실은 투기꾼들과 부자들한테 간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생산력 - 노동 - 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 자본 독점화와 세계화

앞에서 보았듯이 레닌은 독점체의 성장을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규정적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 독점화 과정은 자본주의 세계화 시기에 극적으로 진전했다. 그리하여 지난 25년 동안 은행 및 산업 부문들에서 인수 합병이 거대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보다 두드러진 것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독점체인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의 지사들까지 포함하여 세계무역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300대 기업들이 전 세계 생산적 자산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 철강, 항공, 전자기기, 석유, 컴퓨터, 미디어,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 세계시장의 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 독점화 과정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의 형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과정은 일국적 수준에

39)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Global Employment Trends, January 2008을 보라.

40) 같은 책.

서만이 아니라, 특히 세계시장의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생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온 세계무역의 증가, 특히 자본수출의 증가를 이해해야 한다. 1975년 수치를 지수 100으로 삼아 세계 GDP와 세계무역 및 자본 유출입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면, (IMF와 독일 중앙은행의 수치로 볼 때) 21세기 전환기에 GDP는 약 230, 세계무역은 400, 자본 유출입은 3,000 지수로까지 증가했다.<sup>41)</sup>

독점체들은 국내시장에서의 이윤을 하락으로 인해, 그리고 국내시장만으로는 너무 협소하리 만치 거대한 규모로 쌓아올린 자본축적 량으로 인해 더욱 더 국제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쟁으로 인해 더욱 더 대규모의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거액의 투자 자체가 다시 이윤 실현을 위한 더욱 더 큰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독점체 들로 하여금 수출 시장과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여기에 생산의 일부를 아소스심 하도록 추동한 다. 현대 기술과 값싼 운송비용은 이 과정을 촉진한다. 전 세계에 걸친 시장 개방 압력이 이 과정과 발 맞춰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 발전의 결과로 지난 25년 동안 자본 수출이 제국주의 국가와 ‘발전도상국’ 모두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표 10은 이러한 외국인자본, 외국인직접 투자 FDI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선진국들’(즉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발전도상국들’(남동유럽 및 구 소연방의 독립국가연합[CIS] 포함) 내에서도 모두 커져 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자본 수출의 특정 측면, 즉 생산 및 자본 유통 과정과 관련된 측면(말하자면 외국 인직접투자)만을 다루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적 규모 의 자본수출에서 더 큰 부분은 신용과 투기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발전도상국들’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로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이루어졌다. ‘발전도상국’으로 자본수출이 증가한 것은 제국주의 중심부 에 서 이 율 을 하 락 의

표 10. 세계화와 자본 수출. FDI의 중요성 증가 동향<sup>42)</sup>

		연간 총투자에서 FDI 비율				GDP 대비 FDI 지분			
		1981-85	1993	1998	2005	1980	1990	2000	2005
세계	국내	2.3%	4.3%	11.1%	9.4%	4.9%	8.5%	18.3%	22.7%
	해외	2.1%	4.4%	11.5%	8.3%	5.4%	8.6%	20.6%	23.9%
선진국	국내	2.2%	3.5%	10.9%	8.0%	4.7%	8.2%	16.2%	21.4%
	해외	2.7%	5.2%	14.8%	9.5%	6.4%	9.6%	22.8%	27.9%
발전도상국	국내	3.3%	7.1%	11.5%	12.8%	5.4%	9.8%	26.3%	27.0%
	해외	0.4%	1.2%	2.4%	5.1%	0.9%	4.3%	13.4%	12.8%
남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국내	-	-	-	17.0%	-	0.2%	15.9%	21.2%
	해외	-	-	-	6.6%	-	0.3%	5.4%	11.1%

41) [http://www.miprox.de/Wirtschaft\\_allgemein/Derivate.html](http://www.miprox.de/Wirtschaft_allgemein/Derivate.html)을 보라.

42) UNCTAD가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했다 :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p. 411ff. and 421ff.,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p. 306ff. and 319ff.,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p. 307ff. 남동유럽 및 구 소연방 국가들(CIS)에 대한 수치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완전 한데, 왜냐하면 이전의 UNCTAD 통계에서는 이들 나라가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과 한 그룹으로 묶여 있었고, 이것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FDI와 관련하여 “permanent”라 는 표기는 한 나라 내에 투자된 또는 그 나라로부터 투자된 자본 전체 - 종종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

결과이자, 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투자와 무역을 통해 이 이윤을 하락에 대처하려는 자본의 시도이다. 1990년대 동남아시아나 오늘날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경제’로의 투자 규모가 이를 말해준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자본수출은 무엇보다도 독점화의 진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독점체들 간의 협력이나 인수합병이 증대하여 자본의 집적이 가속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 FDI에서 중요한 몫은 새로운 투자나 확장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지난 25년 동안 제국주의 국가들과 ‘발전도상국들’ 간 자본 수출의 전개과정을 보자.

표 1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지역별<sup>43)</sup>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지분								
	내국인 지분				외국인 지분			
	1980	1990	2000	2005	1980	1990	2000	2005
미 국	14.8%	22.1%	21.7%	16.0%	37.7%	24.0%	20.3%	19.2%
유 럽	42.5%	42.9%	37.6%	44.4%	37.2%	45.2%	47.1%	51.3%
일 본	0.6%	0.6%	0.9%	1.0%	3.4%	11.2%	4.3%	3.6%
동·남·동남아시아	8.8%	8.5%	17.2%	13.8%	2.5%	3.4%	9.3%	7.8%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출입								
	연간 유입분				연간 유출분			
	1980	1990	2000	2005	1980	1990	2000	2005
미 국	23.8%	31.5%	24.0%	12.6%	39.7%	13.6%	15.9%	15.7%
유 럽	39.1%	40.3%	46.0%	40.7%	44.8%	50.6%	64.4%	54.6%
일 본	0.4%	0.0%	0.8%	0.8%	4.9%	19.7%	2.6%	4.9%
동·남·동남아시아	6.7%	10.0%	10.7%	18.4%	0.6%	5.1%	5.0%	7.7%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경쟁 독점자본이 타 독점자본을 인수하는 대금이라는 형태를 일부 취했다 하더라도 FDI의 압도적 부분이 제국주의 중심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히 1990년 이래 새로운 세계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발전도상국들’로의 자본 유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은 독점화와 자본 수출을 증대시켜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처하고자 한다.

어 온 - 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flow”는 주어진 연도에 새로 투자된 FDI를 가리킨다. “Domestic FDI”는 해당국의 전체 고정자본 또는 GDP 중 수입된 FDI 부분을 가리킨다. “Overseas FDI”는 FDI가 수출되어 온 나라의 전체 고정자본 또는 GDP 중 수출된 FDI 부분을 가리킨다. “이미 발전한 국가”와 “발전도상국”이라는 UNCTAD의 범주들은 확실히 문제가 많고, 개념적 수준에서 제국주의적 오만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 발전한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를, “발전도상국”은 반(半)식민지를 뜻하지만, 정확히 등치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UNCTAD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의 반식민지 나라들(이 나라들에서는 FDI가 자본축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을 “이미 발전한 국가들”과 함께 묶어, 자신이 낸 최신 “World Investment Report”에 포함시키고 있다. UNCTAD의 통계 표 또한 남동유럽 국가들과 구 소연방 국가들을 다른 나라들과 별개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어 결함이 많다. 현실에서 이들 나라는 모두 (러시아를 제외하고) 반식민지들이다.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4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p. 7.

## 기생성과 투기와 부채

부르주아지는 착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의 핵심 부문인 생산에서 성장률 또는 이윤율의 하락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투기와 비생산적인 금융 투자로 이전하는 경향이 세계화 시기에 더욱 증대했다. 이 과정은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국주의 자본에 개방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세계 통화시장만 보더라도 1조 9천억 달러 가치의 통화가 매일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989년의 세배 규모이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외국인 보유분의 가치는 세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많은 나라들에서 GDP의 36%를 평균으로 할 때 100% 규모로 커진 것이다.

투기 규모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가치에 도달해서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헨우드는 1952년에서 2003년 간 미국에서 GDP 대비 전체 금융자산 비율이 약 400%에서 거의 850%로 증가했고 2000년에 최고점에 달해 925%를 넘어선 것으로 계산했다. 미국의 GDP가 (2008년 기준) 12조 달러인 반면, 파생상품 시장은 10배가 넘는 128조에 달한다. 이것은 투기시장이 생산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안정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1929년에 그랬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붕괴는 전체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자본 가운데 투기적 화폐자본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투기적 금융자본 부문이 전체 이윤 증가분의 4분의 3을 점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실제 생산이 아닌 투기적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이윤 부분이 극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9. 미국 기업의 전체 이윤에서 세 부분(해외소득·금융·제조업)이 차지하는 몫의 변화, 1948-2001년



투기의 역할 증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의 국제 이동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화폐자본이 직접적인 생산과정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 10은 오늘날 전체 국제 자본 유출입 가운데 단지 7분의 1만이 직접투자임을 보여준다. 나머지 7분의 6은 은행거래나 투기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 또한 거대한 증가를 보았다. 자본은 화폐자본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신용거래를 통해 유통 비용을 감축시켜서 축적 과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여기서 신용의 객관적 역할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신용은 자본 유통을 가속화시키지만, 다른 한편 공황기에

는 파산을 가속화시킨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용제도가 이제 물질적 생산력 발전과 세계시장의 창출을 가속화한다. 이 신용제도를 일정한 발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새로운 생산 형태를 위한 물질적 토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임무이다. 동시에 신용은 이러한 모순 - 그리고 낡은 생산양식을 분해시키는 이들 요소들과 함께 - 의 격렬한 폭발, 즉 공황을 가속화한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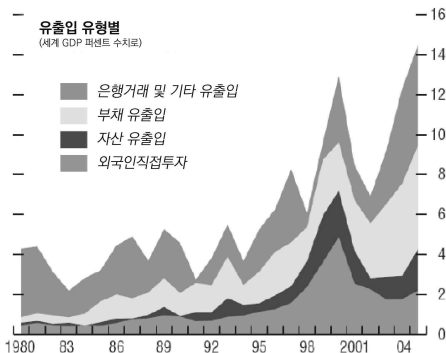
그림 10. 국제 자본 유출입 구성 1980-2005년<sup>45)</sup>

부채가 모든 수준에서, 가계부채로부터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 나아가 국가 자체의 부채까지 어디서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다음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12. 가계의 가치분소득에서 담보부채 비율, 1993-2003년

다음 그림(그림 11)은 미국의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가계뿐만이 아니다. 그림 12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약하면, 2007년의 신용 공황으로 이어진 몇 년 동안에 부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본주의가 점점 더 신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신용 의존도가 증대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온 생산적 노동의



퇴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자본의 무능력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림 11. 미국과 서유럽의 가계부채

유로지역·영국·미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 수치로, 1995-2004년)<sup>(1)</sup>

그림 12. 미국 기업의 이윤 대비 부채

기업의 캐시플로(순이익) 대비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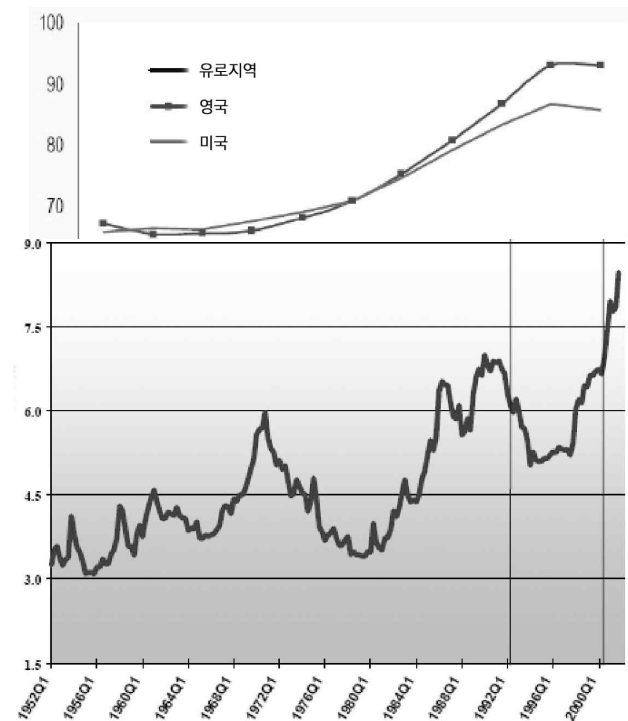
## ‘발전도상국’에 대한 수탈 증대

세계화를 통해 독점체들은 ‘발전도상국’에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제국주의적 수탈을 강화했

44) K. Marx, Capital, Volume 3 (마르크스의 <<자본>> 3권), Harmondsworth 1981, p.572.

45)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7), p. 6.

	1992	2000	2003
미국	58.7%	65.0%	77.8%
일본	41.6%	54.8%	58.4%
독일	59.4%	84.4%	83.0%
프랑스	28.5%	35.0%	39.5%
이탈리아	8.4%	15.1%	19.8%
캐나다	61.9%	68.0%	77.1%
영국	79.4%	83.1%	104.6%
스페인	22.8%	47.8%	67.4%
네덜란드	77.5%	156.9%	207.7%
호주	52.8%	83.2%	119.5%



다. 이 과정은 흔히 세계은행과 IMF를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가면 아래 행해졌는데 이들은 발전도상국들이 복지 서비스 삭감, 의료와 교육의 사유화, 다국적 기업에 시장 개방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 신용공여, 직접투자, 투기적 투자 등 등의 형태를 취한 대규모 자본수출을 통해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기업 이윤, 이자, 채권 수익 등에서 거액의 초과이득을 낼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창출해왔다.

그 결과, '발전도상국들'에서 제국주의 나라 부르주아지한테로 거대한 자본의 순 이전(net transfer)이 나타났다. 10년간에 걸친 이 순 이전의 규모를 표 13에서 알 수 있다.

단지 1995-2006년 기간 동안만도 모두 합쳐 2조 8957억 달러가 '발전도상국들'에서 제국주의 중심부로 순 이전 된 걸로 나타난다. 제국주의 금융자본가들에 의한 이러한 고리대금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음 계산을 보자. 2005년에 이들 지역의 GDP 합산액은 9조 4545억 달러였다. 따라서 그 해에 빠져나간 5789억 달러는 이들 '발전도상국' GDP의 6.5% 정도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 수치는 제국주의 자본이 획득한 이윤 모두를 표시한 수치가 아니다.

표 13. 발전도상국과 구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금융 자원의 순 이전<sup>46)</su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프리카	5.9	-5.5	-4.7	15.6	4.2	-27.7	-16.8	-6.7	-21	-35	-63.4	-95.3
동·남아시아	21.8	18.8	-31.9	-128.4	-137.6	-119.1	-115.6	-146	-170.7	-162.1	-230.5	-244.7
서아시아	20.1	10.6	12.6	34.8	7.7	-29.7	-23.8	-18.4	-43.3	-69.8	-125.9	-194.7
라틴아메리카	-1.7	0.6	23.4	44.3	9.8	-1.6	4.3	-31.6	-60.6	-80	-105.2	-123.1
전체 발전도상국	46.2	24.4	-0.6	-33.8	-115.9	-178.2	-151.9	-202.7	-295.6	-346.8	-525	-657.7
구 스탈린주의 국가들	-2.7	-6.3	2.8	3.6	-23.7	-49.4	-29.1	-26.1	-33.7	-54.6	-86.8	-125.1
발전도상국과 구 스탈린주의 국가들 합산	43.5	18.1	2.2	-30.2	-139.6	-227.6	-181	-228.1	-329.3	-410.4	-611.8	-782.8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 나라 자체에서 소비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한 자본축적분으로 들어갔다. 그 수치는 오로지 ‘발전도상국’으로부터 직접 수탈된 액수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의 수치들은 ‘발전도상국’이 부채로 인해 2005-6년에 제국주의 중심부한테 얼마나 많이 내주어야 했는지 보여준다. 그 액수는 이들 나라 GDP의 4분

의 1을 넘어서는 반면, 고소득국들은 대외부채가 전혀 없다. <sup>47)</sup>

이 수치들은 끔찍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진짜 인간 비극을 숨기고 있다.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들과 세계 무역회담들 및 기타 협정들은 사회의 응집력을 파괴했고 그 결과 내전, 기아, 반란, 혁명들을 낳았다. 21세기 들어와 아르헨티나 같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도 IMF

표 14

	대외부채 (GNI 중 %)	GDP	일인당 GNI
저소득국	27.6%	1조 6천 억 달러	650달러
하위 중간소득국	24.1%	4조 7340억 달러	2,037달러
중간소득국	28.9%	10조 490억 달러	3,051달러
고소득국	데이터 없음	36조 5830억 달러	36,487 파운드
세계	해당 없음	48조 2240억 달러	7,439 달러

가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밟았다가 경제가 붕괴했다. 그때 이후로 파라과이,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태국, 베네수엘라 등 그 밖에 많은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반란들이 일어났다. 제국주의에 의한 ‘발전도상국들’의 수탈은 ‘발전도상국’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붕괴를 가져왔는데, 아프리카는 이러한 파괴적인 사태전개의 맨 앞에 있었다.

이 결과로 제국주의 강대국, 특히 미국이 ‘발전도상국’에 직접 개입하는 사태가 늘어났다. 현지의 지배계급이 착취 관계를 제국주의에 이익이 되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제국주의는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결과 ‘발전도상국들’이 부유한 중심부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종속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통화를 직접 연동시키는 형태 로든(라틴아메리카의 통화 위원회와 같은 이른바 ‘달러화’), 또는 제국주의 군대 주둔을 더욱 확대 시키거나(발칸반도, 중앙아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차드), 대리전을 통해서나(소말리아), 발칸반도

46)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7, p. 58.

4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p.289



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처럼 공공연한 보호국을 만들거나 등등.

이러한 조치들은 이윤을 증대시킬지 모르지만 동시에 사회적 위기와 계급투쟁을 격화시킨다. 임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부활과 결합되어 노동자계급과 하층 중간계급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촉발한다. ‘발전도상국’에 대한 수탈 증대는 확실히 제국주의 자본에게 거대한 물질적 이익을 안겨주지만 그것이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 미국 헤게모니의 실추

이제 현재의 세계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자. 경제·정치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엔겔스는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경제적 조건이 역사 발전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본다. …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a)정치적, 법적,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예술적 등등의 발전은 경제적 발전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 그리고 또한 경제적 토대에 반작용한다. 경제적 조건이 원인이자 홀로 능동적인 요인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영향만 받는, 그런 식의 것은 아니다. 경제적 필연성 -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자신을 관철시키는 - 의 토대 위에서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sup>48)</sup>

이와 같이, 자본은 오직 상품교환과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이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조직될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 법적 관계와 국가권력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다. 나아가 자본은 가치를 창조하는 상품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생산, 재생산되어 새로운 노동력이 창조될 때에만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직장, 노동현장 밖에서 일어난다. 가정에서의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의 부불노동을 통해서.

따라서 자본주의는 상품과 자본의 생산·재생산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의 생산·재생산 - 상품과 자본의 생산·재생산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 을 또한 전제조건으로 한다. “재생산의 과정은 생산의 물질적 요소들을 재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 자체의 재생산 과정이기도 하다.”<sup>49)</sup>

적대적인 계급들에 의해 찢겨진 사회의 이 모순적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피억압 계급·계층을 지배계급에게로 붙들어 매어주고 착취와 억압이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믿게 해주는 정교하게 짜여진 이데올로기적 연결망이 없다면, 그것이 유지되기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재생산 과정의 역동성과 취약성은 제국주의 시대 일반에, 그리고 특히 현재의 세계화 시기에 더욱 첨예해졌다. 이것은 제국주의 경제·제국주의 정책·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제 경향 간 적대가 더욱 강렬화 하고 더 첨예해지며 폭발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적대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을 맞는다.

생산력과 민족국가 사이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 시대, 즉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 모순이 더 심화된다.

48) Friedrich Engels: “Letter to Walther Borgius” (25.1.1894); in: MEW 39, S. 205 (강조는 원저자).

49) Nicolai Bukharin: Economics of the Transformation Period, New York 1971, p. (S. 69) (강조는 원저자).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가 중세의 지방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민족국가는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형태를 갖추자마자 민족국가는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생산력과 민족국가라는 틀 사이의 모순은 일차적인 모순 — 즉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 — 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세계 사회체제의 위기로 만든다.<sup>50)</sup>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사활을 건 헤게모니 쟁탈전이 나온다. 이러한 헤게몬 hegemon, 즉 일단의 연합한 독점체들을 거느린 세계 패권 제국주의 국가는 쇠퇴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원심력을 억제하고 생산, 재생산, 유통의 국제적 흐름에 모종의 질서를 부과하여 유지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

1·2차 세계대전 기간(1914~1945년)에 그러한 패권 국가는 부재했었는데, 당시에 자본주의가 혹독한 경련을 일으킨 데에는 혁명적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과 함께 이러한 헤게모니의 부재라는 이유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명백한 미국의 지배력 이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동안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경쟁자들에 비해 경제 쇠퇴의 속도를 낮추는 데 훨씬 더 성공했고 어느 정도로는 이윤율 하락을 막는 데도 더 성공했음에도 미국 자본의 헤게모니 지위는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도전받고 있다.

먼저 미국에 관한 몇 가지 핵심 경제 데이터를 보자. 다음 표가 보여주듯이 현재도 여전히 미국은 단연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다.

표 15. 국가 간 비교 : GDP 및 1인당 GDP<sup>51)</sup>

	인구 (단위 백만명)	GDP (단위 10억 달러)	1인당 GDP (단위 1달러)
세계	6,438	44,385	6,987
미국	297	12,455	42,007
EU 25국	459	13,300	28,951
EU 15국	385	12,615	32,741
일본	128	4,506	35,215
러시아	1,305	2,229	1,709
중국	1,305	2,229	1,709
인도	1,095	785	717

이와 같이 미국 자본주의가 일반적인 생산력 정체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위 통계치가 보여주는 바, 1990년대에 미국 자본은 경쟁자들에 비해 경제적 쇠퇴의 폭을 줄이는데 많은 부분 성공했고, 이윤율 하락 추세를 돌려놓는 데도 어느 정도는 더 성공했다. 이런

50)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Writings 1933-4 New York 1972. p. 304. (트로츠키 <전쟁과 제4 인터내셔널>에서).

51) Global Britain Briefing Note, No 45 (6th November 2006): European Union 2005 Prosperity Ranking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pp. 289 and. 295. 중국에 대한 수치는 홍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유로 지난 10년에서 15년에 걸쳐 미국 자본주의는 자신을 따라잡으려는 주요 경쟁자들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표 16. 미국과 비교한 유럽연합 및 일본의 경제력 추이, 1980-2005년<sup>52)</sup>

	GDP (미국 대비 % 수치)				노동시간으로 나눈 GDP (미국 대비 % 수치)			
	1980	1990	2000	2005	1980	1990	2000	2005
EU 15국	111.0%	104.9%	94.5%	101.3%	84.9%	88.9%	93.7%	91.0%
일본	37.4%	40.3%	33.8%	36.2%	61.4%	71.3%	74.9%	74.0%

미국 자본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쟁국들에 비해 자국 노동자계급을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데 더 성공해 왔다. 미국 노동자계급은 연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고, 더 낮은 임금으로 그들 생애의 더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동해야만 했다. “마르크스주의 용어법으로 말해서 미국 자본이 EU 자본에 비해 갖고 있던 이점은 세계화 시기 동안 노동자계급을 약화시키는 데 더 성공적이었던 것, 따라서 그만큼 착취율을 높이는 데도 더 성공적이었던 것이다.”<sup>53)</sup>

그럼에도 미국 자본의 헤게모니 지위가 많은 분야에서 위협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위의 표 16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FDI(외국인직접투자) 흐름면에서 EU가 미국을 누르고 명백히 강화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한 바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 세계 규모의 수출을 검토할 때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다. 미국이 여전히 주요 상품 수입국이지만, 아래 표 17 보여주듯이 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8.9%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낮았고, 이는 달러 환율이 미국의 수출에 유리한 상황인 데도 그러했다.

동시에, 지배적인 세계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존적인 상태로 떨어지고 있다. 자국 산업에 값싼 원료와 반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

표 17. 세계무역 분포, 국가별·지역별 1948-2003년

	수출 (% 수치로)						
	1948	1953	1963	1973	1983	1993	2005
미국	21.7%	18.8%	14.9%	12.3%	11.2%	12.6%	8.9%
유럽	6.8%	11.9%	27.5%	38.6%	30.4%	36.1%	39.4%
일본	0.4%	1.5%	3.5%	6.4%	8.0%	9.9%	5.9%
중국	0.9%	1.2%	1.3%	1.0%	1.2%	2.5%	7.5%
인도	2.2%	1.3%	1.0%	0.5%	0.5%	0.6%	0.9%
남아메리카	12.3%	10.5%	7.0%	4.7%	4.4%	3.0%	3.5%
중동	2.0%	3.2%	4.1%	4.4%	3.0%	3.5%	5.3%
아프리카	7.3%	6.5%	5.7%	4.8%	4.5%	2.5%	2.9%

52) M. O'Mahoney/ B. van Ark (Hrsg.): EU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An Industry Perspective (2003), p. 20, Bart Van Ark: Europe's Productivity Gap: Catching Up or Getting Stuck? (2006), p. 10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p. 295.

53) Michael Pröbsting: “Amerikanisierung oder Niedergang”. Widersprüche und Herausforderungen für das imperialistische Projekt der europäischen Vereinigung; in: Revolutionärer Marxismus Nr. 35, S. 33.

수입 (% 수치로)							
	1980	1990	2000	2005	1980	1990	2005
미국	13.0%	13.9%	11.4%	12.3%	14.3%	16.0%	16.5%
유럽	9.6%	12.4%	29.0%	39.2%	31.3%	34.3%	39.3%
일본	1.1%	1.7%	0.9%	0.9%	6.7%	6.4%	4.9%
중국	1.0%	2.9%	4.1%	6.5%	1.1%	2.8%	6.3%
인도	3.1%	1.4%	1.5%	0.5%	0.7%	0.6%	1.3%
남아메리카	10.6%	9.3%	6.8%	5.1%	3.8%	3.3%	2.8%
중동	1.7%	2.0%	2.3%	2.8%	6.2%	3.4%	3.1%
아프리카	7.6%	7.0%	5.5%	4.0%	4.6%	2.6%	2.4%

외에 투자된 자국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여타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발전도상국들’의 은행과 산업을 제국주의 자본에 개방하고 시장을 더 한층 개방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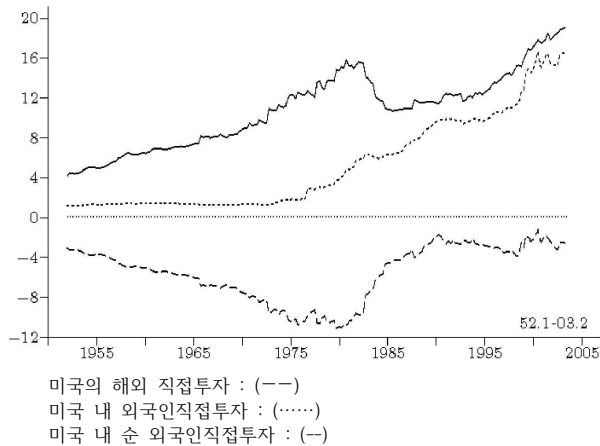
다음 수치들은 미국의 세계경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따라서 세계정치에 대해서도 더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외국인 화폐자본의 정기적 유입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해 가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국제수지 적자가 빚은 결과이다. 2006년 말이면 이 적자는 8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GDP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강 그 해 미국 순 투자 가치 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 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 총당 때문에라도 매일 외국인자본 2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해야만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돈의 많은 부분이 석유수출국 중동과 동아시아, 주되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부터 나온다.<sup>54)</sup> 물론 이 상황은 미국의 대외정책 이면에 있는 동기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현지의 정권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감당할 자금을 대는 위치에 머물러 있도록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미국의 해외자본 보유분이 증가하는 동안 미국 자본에 대한 외국인 보유분은 그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이것은 특히 2007년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중국, 그리고 여타 주요 수출국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부 펀드’는 파산 직전의 미국 금융회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동원한 바 있다.

그림 13. 순국내생산 대비 미국의 해외투자 및 미국 내 외국인투자, 1953-2003년 (%)<sup>55)</sup>

54) Gilles Moëc/Laure Frey: “Global Imbalances, Saving Glut and Investment Strike” ; Banque De France: Occasional Papers No. 1, February 2006, p. 5.

55)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2004) <http://www.cepremap.ens.fr/~levy/biblioa.htm>을 보라.



미국 제국주의의 글로벌 위상에서의 극적인 역전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여타 세계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85년까지 미국은 채권국이었지만, 그때 이래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다. 우리가 미국의 부채와 자산을 대차대조 해 본다면, GDP의 25%가 순 부채라는 계산을 얻게 된다!<sup>56)</sup> 미국의 세계시장 의존도가 증가한 것은 미국이 총 이윤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해외투자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78년에 미국 자본은 이윤의 단지 10%를 해외에서 얻었다면 2001년에 와서 그 비율은 25.7%로 늘어났다.<sup>57)</sup>

이런 간단한 검토를 통해 미국 자본이 점점 더 전 세계에 걸친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 내 투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외국인자본 유입에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7년 신용위기가 오기 15년 전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공은 국내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증대시킨 덕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일하게 세계에 대한 수탈을 증대시킨 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들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만약 모든 국가가 그러한 '성공적인' 수탈을 한다면 나눠먹을 전리품이 남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방법들은 무한정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져서 계속 미국 부채에 자금을 대는 것을 이제 억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재화를 더 이상 미국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유로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압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0.87에서 1.34로 5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달러 표기 외환 보유고를 정리, 청산하고, 그리하여 미국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시장과 세계정치에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또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불안정에, 그리고 물론 저항에도 더욱 취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경쟁자들과 반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더욱 더 공격적이고

56)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2004) <http://www.cepremap.ens.fr/~levy/biblioa.htm>을 보라.

57) 이에 대해서는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http://www.cepremap.ens.fr/~levy/biblioa.htm>을 보라.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전 미국 국무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다 야만적이었던 고대 제국 시대로 돌아가 당시의 용어법으로 옮긴다면 제국의 지정학적 전략은 세 가지 명제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가신국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보 의존을 유지시키는 것, 이어서 조공국들을 계속 고분고분한 상태로 만들어 보호막 아래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야만인들이 통합, 단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sup>58)</sup>

어느 제국주의 강대국이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 지위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나마 꼽을 수 있다면 경제력에서 비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유럽연합이다. 그럼에도 EU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먼저 우리는 EU가 미국과 달리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 간에 영구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국가 연합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U 자체에는 어떤 확실한 주도적 강대국이 없다. 헌법 채택과 유럽 군대 창설을 통해 EU를 보다 통일되고 호전적인 블록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둘러싸고 각국 지배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EU가 경제적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와는 거리가 멀다면, 정치적 군사적인 수준에서는 더 더욱 그러한 힘이 없다. 물론 독일-프랑스의 지배계급은 미국을 따라잡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EU가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국과 EU 간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경쟁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심지어 군사적 차원에서의 경쟁도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 맺으며


지난 100년 동안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와 독점의 강화로 인한 장기적 정체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강대국들 각국의 내부 모순과 그리고 그들 강대국 간의 모순이 심화하고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실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정치적 불안정은 깊어지고 있다.

명백히 이러한 모습은 레닌이 내다본 제국주의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 각 생산 단위 및 부문들을 지배한다. 그러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최고도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이윤율 저하 경향이 가장 강렬하다. 이러한 과잉축적은 자본수출과 기생성을, 그리고 주식·부동산·금융 ‘파생상품’ 투기를 추동한다. 자본 가치파괴 공황은 제국주의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세계 분할·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간의 쟁투를 전쟁으로까지 몰고 간다. 민족국가들은 자신이 가치파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고 경쟁상대국과 종속국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서로 치고 받는다.

현재의 세계화 시기는 이 모델의 유효성을 더 한층 입증해 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는 자국 노동자계급을 짓누르고 거둔 승리와 소련 동구권의 최종 붕괴, 이 두 조건을 이용하여 세계질서를 자신에 이익이 되게 재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윤율을 유지하고 정체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상쇄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와 그 여파가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그 최강 제국주의 국가는 단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

58)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lications, New York, 1997, p.40.

역동성을 회복한 것 그 이상을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질서는 레닌이 그린 모델과 50년 전보다도 더 닮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히 전망할 수 있다. 불안정이 증대하고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러나 또한 레닌의 결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이다.”<sup>59)</sup> 

---

59) V I Lenin: Preface to French and German editions. Ibid. P.12.  
(위 부하린의 책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에 레닌이 붙인 서문에서).

## 보론 생산력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생산력 정체 경향이 어떻게 경제성장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문제 —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결정적 논박이라고 보고 있는 — 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이론은 생산력 개념 자체를 상품 생산 혹은 고정자본의 축적과 등치시킨다. 그리하여 GDP가 2% 증가, 또는 자본재가 1.5% 증가할 때 이들 이론가는 여하한 생산력 정체 경향도 찾지 못한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생산력 정체 경향이 있다는 것이냐?”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생산력은 노동과 생산자료(물질적 생산수단과 생산 결과물 둘 다)를 포함한다. 생산력은 생산수단(기계, 원료 등)과 노동자(생산수단을 운용하고 사회적 분업 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 둘 다이다.

생산수단과 노동자가 상호의존적이며,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수단에 노동자를 투입하는 목적이 잉여가치를 담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생산력은 단순히 물질적 대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조건, 그리고 자연 — 노동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 을 또한 포함한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이 생산관계(잉여 생산을 위해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를 앞지를 때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와 엥겔스는 어떻게 전(前)자본주의 생산양식들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의해 타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생산력이 단지 자본주의 아래서 취하는 그것의 특수한 형태들(고정자본이나 가변자본 같은)로 등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지 건물과 기술, 그리고 GDP 수치로 그 증가량이 표현되는 생산물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과 자연이 생산력의 핵심 구성부분이다.

자본은 사회적 관계, 즉 인간 집단들(계급들) 간의 관계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은 단지 생활수단과 노동도구와 원료로만, 즉 물질적 생산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로도 이루어진다. 자본을 이루는 모든 생산물은 상품이다. 따라서 자본은 일정량의 물질적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상품, 일정량의 교환가치, 일정량의 사회적 크기이기도 하다.<sup>60)</sup>

달리 말하면, 자본과 상품은 교환가치의 관계로서, 이것은 사용가치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 간의, 현상과 본질 간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엥겔스는 이를

60) 카를 마르크스, 『임금노동과 자본』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경제학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계급들 간의 관계를 취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언제나 사물과 결부되어 있고 사물로 나타난다.<sup>61)</sup>

또 다른 구절에서 엥겔스는 생산력 개념 — 포괄적으로 정의된, 그리고 그 광의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 의 모순적 통일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기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는 정도가 끊임없이 증대되는 것 — 산업예비군의 확대 — 과 짝을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무제한의 생산 확대 ... 두 측면에서 전혀 없는 생산력 발전,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과잉, 여기서는 생산수단 및 생산물의 과잉생산, 저기서는 노동자(고용 없는, 그리고 생존수단 없는)의 과잉. 그러나 이들 생산과 사회적 복리라는 두 지렛대는 함께 작동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생산력이 사용되는 것을, 생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가로막기 (생산력과 생산물이 먼저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때문이다. 그것들의 과다함 자체가 그것들의 사용과 유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모순이 성장해 터무니없는 부조리가 되었다. 생산양식이 교환형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부르주아지는 그 자신의 사회적 생산력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sup>62)</sup>

마르크스도 생산력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차지하는 중심적 지위를 강조했다.

모든 생산도구 가운데 최대의 생산력은 혁명적 계급 자신이다. 혁명적 요소들이 계급으로 조직되는 것은 구 사회 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생산력이 전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63)</sup>

부하린 또한 (그리고 그와 함께 레닌도) 생산력을 그 총체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노동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회의 총 노동력 —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 은 한편으로 생산력 개념의 두 구성부분 중 하나이다. (생산력은 현존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총합에 다름 아니므로). 동시에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다.<sup>64)</sup>

트로츠키도 노동운동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배타적으로 물질적 생산량의 증감 차원에서 측정되지 않는다. 물론 이 잣대는 의미 있는 지표인 것은 맞다. 장기적으로 가치법칙 및 그 전개가 (사용가치로 나타나는) 교환가치의 생산 동력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은 또한 노동력 상품 및 그 재생산 조건 — 달리 말하

61)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62) 프리드리히 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3장

63) 카를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64) 니콜라이 부하린, 『과도기 경제학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Transition Period)』 4장

면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생활 조건 — 의 발전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지 속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가변자본의 생산성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 복리 — 인간 생존과 재생산 — 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요인인데,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 발전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생산력의 파괴력으로의 전환

생산력 문제에 관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 즉 생산력이 파괴력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자.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산력이 사적소유 체제 아래서는 일면적인 발전만을 이루게 되어 그 많은 부분이 파괴력으로 되어버리는지, 더욱이 그 생산력의 거대한 부분이 이 체제 내에서는 도무지 사용될 용처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지”<sup>65)</sup>를 설명했다.

사적소유의 지배 하에서 생산력이 파괴력으로 되어버린 지점까지 생산력과 교류형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급들 간의 모순이 그 극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 시대에 사적소유는 폐지해야 함을 우리는 보여준 바 있다.<sup>66)</sup>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의 완전한, 자유로운 발전에 질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력 발전 자체가 과정에서 점점 더 파괴력을 끌어들이는 지경으로까지 이미 생산력은 발전했다. 물론 이전에도 파괴력은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 파괴력이 전 세계를 망라하는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이다. 파괴력으로 전화된 생산력은 여기 제국주의 시대에서 인류 전체를 수십, 수백 세대 이전으로 후퇴시켜 놓을, 혹은 심지어 인류를 완전히 파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이윤체제가 몰아가는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에게 닥친 극적 위험(지구 온난화, 삼림 사막화, 자연자원의 고갈), 그리고 수억 수천만의 죽음을 가져 올 핵무기 위험은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 발전이 어떻게 파괴력의 발전을 동반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착취와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각종 노동과정들을 하나의 사회적 전체로 통합시키는 것은 오직 모든 부의 원천, 즉 토지와 노동자로부터 그 생명력을 쥐어짜내 고갈시킴으로써 이다.<sup>67)</sup> ㉠

65) 카를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66) 카를 마르크스, 같은 책

67) 카를 마르크스, 『자본 I』 15장 10절

# INTERNATIONAL